



자연탐방 - 삶의 源流를 찾는 길

-국립공원 보전운동의
문화적 전개-



이 재 근

(국립공원협회 이사·언론인)

땅과 물, 공기는 지구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이고 우리들 인간 생활의 원천이다. 대저 땅이 솟아 산이 되고 물이 흘러 강이 되며 흙의 뜨거움과 물의 차가움 속에서 모든 생물은 생멸한다. 더욱이 전국토의 70%이상이 산과 계곡인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산과 물은 분명 생활의 터전이요 삶의 근본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인의 뉘이 담겨 역사가 숨쉬는 곳이 산이며 삼면으로 트인 망망대해는 한국인의 웅혼한 기상을 펴는 앞마당이다. 산과 바다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의 샘이 되었고 마음의 고향이 되어 왔다.

사람은 이 자연환경속에서의 진화물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찾는 것은 삶의 원류를 탐색하는 것이며 그 품속에서 위안을 받고 휴식을 취하기 위함이다. 온갖 인류 문화의 터전이 자연환경 그 자체인것도 이런 까닭이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한결같이 올곧은 자연환경으로, 국가의 얼굴로 보존유지하려는 자연공원은 모두가 광대한 자연을 기초로 하거

나 유구한 역사가 빚어낸 문화유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발상지이며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가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자연은 유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는 말이 있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우주변화의 원리를 이르는 말이다. 지난 세기동안 인류는 물리적인 대자연의 변화만큼이나 많은 문화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더욱이 인간의 두뇌에 의한 과학문명의 눈부신 발달은 놀라움의 경지를 넘어 이제 공포로까지 다가와 있다.

30년전, 아폴로 11호(69. 7. 20)의 달 착륙과 함께 「계수나무 옥토끼」로 낭만을 주던 「달의 신화」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으며 얼마전에 (97. 7. 4) 화성에 착륙한 탐사선 「패스파인더」는 화성의 베일을 우리 목전에서 벗겨버렸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인가. 그토록 찬란한 인류문명의 이면에서는 이 아름다운 지구가 극심한 환경파괴의 오염으로 중병을 앓고 있

음을 알아야 한다. 곳곳에서 「환경종말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인류의 앞길에 암운을 몰아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 추세는 하나뿐인 지구의 자정능력을 상실시켜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는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오존층 파괴에 따른 인체의 피해와 생태계의 파괴현상,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야생동식물 남획 및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생태계의 균형상실, 산업화에 따른 유해 폐기물의 급증과 불법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등의 자연환경문제는 또 어떠한가. 결국 환경오염피해의 광역화현상으로 나타나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전 지구차원의 공동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또 이대로 대기중의 탄산가스가 증가하면 2000년에 가서는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섭씨 0.5도 상승하게 된다. 그 온도상승이 가속되면 지구의 기온과 환경을 조절하는데 절대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남북극의 빙상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무빙하시대」를 장차 맞이하게 돼 수면이 높아지면서 지구의 3분의 1이 바다밑으로 가라앉는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유럽을 비롯해서 인도, 중국, 미국 등이 때아닌 홍수와 한파를 겪고 「토네이도」라는 거대한 회오리바람에 한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상이 변도 따지고 보면 지구 환경오염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현상들이다. 「패스파인더」호가 전송사진으로 보여준 화성의 「아레스바리스」 평원의 황량한 풍경과 과거 그 평원에 물이 가득 흘러었다는 사실은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의 종말과 관련하여 우리인류에게 시사하는바 크다.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자연환경을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흙의 절대성을 새삼 인식해야 한다. 흙은 인간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작금의 북한 식량난은 그들이 주장하듯 단순한 자연재해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흙

을 등한시하고 산림을 훼손하며 환경을 파괴한데서 온 필연적 재앙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수년간의 수해로 인해 홍작이 됐다고 발표한바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기후가 비슷한 한국엔 거의 피해가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삼림을 마구잡이로 베어내고 영양분이 가득한 표토층이 유실된 상태에서 홍수까지 겹치자 속수무책이 된 것이다. 자연을 잘못 이용한데 따른 인위적인 재앙이 북한의 기근이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식량증산을 위해 다락밭을 조성하고 연료 채취를 위해 많은 산림을 훼손하여 왔다. 이들 훼손지는 급한 경사지에 초지형태로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산림훼손지는 큰비가오면 흘러내리는 토사량이 녹화된 산림보다 1백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 식량위기를 야기한 수해가 바로 산림훼손지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호우때 막대한 토사가 농경지로 흘러내려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는 오늘날 환경문제가 곧 경제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이렇게 볼 때 환경문제는 결국 인간의 의식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 인간은 어떤 눈으로 자연을 바라 봐야 하는가를 냉철히 자문해야 한다. 현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구조에서 인간의 영원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자연과 인간, 물질과 인간, 우주와 인간의 문제를 일관된 생명인식의 차원에서 조망해야 한다. 오늘날 식량문제나 지구환경파괴는 모두 생명경시 풍조, 가치관 부재의 현대문명이 낳은 경고이다. 다시말해 환경파괴는 인간과 우주에 내재된 「순환의 원리」가 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씨를 심으면 햇빛과 토양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원리」가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절기가 불규칙한 징후들이 나타난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돈으로 환산했을때 연간

33조달러에 달하며 이는 인간의 경제 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가치의 2배에 달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 있다. (미국의 과학저널 네이처 최신호) 기후의 조절력과 토양의 생산력등이 인간에게 베푸는 가치는 과거에는 경제학자들조차 산정을 시도한 적이 없는데 이런 연구는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결과다. 이런 점에서도 땅은 모두의 스승이다. 땅에 지혜들이 묻혀있다. 선조들은 땅의 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살아왔다.

뿐만아니라 최근엔 공해가 심한 대도시지역의 유아들은 잠을 자다 갑자기 숨지는 유아돌연사증후군이 일어난 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미국 워싱턴 환경실무그룹의 메디컬 트리뷴 뉴스지)

지난 97년 6월 서울에서 채택된 유엔환경계획(UNEP) 「서울선언문」에는 「온 생명체를 보존해야 인류의 생존도 보장될 수 있으며 인류의 모든 행위는 온 생명체계의 온전성을 높히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환경윤리의

기본정신이 담겨 있다. 즉 모든 환경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온전한 보존이라는 환경과 생명을 연관시켜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서울선언문」은, 인류문명의 지속성을 높이고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윤리 원칙을 제시했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책임분담과 상호협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실현을 위해 ▲물질만능주의의 극복과 정신문화의 창달 ▲환경정의의 촉구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 증진 ▲책임증진과 협력극대화 등 4원칙을 제시했다.

사람은 땅속 유기질이나 들풀을 소화해 자양으로 만들 수 없지만 미생물들과 초식동물들은 그것으로 각기 자기 몸을 살찌우며 먹이사슬을 이루어 다른 생명체를 키운다.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의 존재의미를 지닌다. 불결하고 귀찮은 파리 조차도 그 유충이 오물을 분해하고 성충으로 자라 노래하는 새들을 먹여 살리는 먹이사슬의 한 고리이자 이동하는 에너지의 한 머무름점으로

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자연생태계 보존은 이같은 상호의존의 생명체계가 유지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함께 지켜준다.

이제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국립공원 문화인식을 깊이 해야 한다. 여기서 국립공원문화란 국립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우리 삶에 맞게 활용하는 정신적 물질적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동규범이 바로 자연공원 보호 보존운동이다.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지혜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에서 유래된 다양한 사상이나 자원을 우리 삶에 맞게 펼쳐나가는 활동이 그것이다.

자연은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의 사유물이 아니다. 인류의 폐부(肺腑)이며 삶의 현장이기도 한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당대에는 복원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 수려한 천혜의 자연자원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가야 한다.▲▲